

건강 칼럼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통증 반복된다면, 신경차단술 도움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에 따라 통증 양상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인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모두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만 발생 원인과 증상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상태를 구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김지훈
부평 서울베스트정형외과 원장

다 엉덩이와 다리, 종아리 통증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두 질환 모두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 통증뿐 아니라 저림과 감각 이상,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보행 불편과 일상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비수술적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신경차단술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치료다. 가나나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병변 부위에 접근하며, 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술은 C-ARM과 같은 영상 장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면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통증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출혈 부담이 적고, 국소마취로 진행돼 회복 부담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압박감이나 주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치료 접근이 다른 질환이다.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美 보수성향 기독교 교도 모임 “트럼프를 찬양하리”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보수 성향 기독교 기도 모임 '리데이케이트 250' (재현신 250) 예배에 참석한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녹화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백악관 지원을 받은 이 행사는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신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 들었다.

북한, U-17 여자축구 '우승'



북한 여자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7일(현지 시간)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 결승전 일본과 경기 중 득점에 환호하고 있다.

사설

멕시코시티 한복판을 달군 BTS

월드 투어 중인 BTS가 멕시코 수도 한복판을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궁 발코니에 등장한 BTS를 보고 환호하는 엄청난 인파에 BTS마저 놀랐다. 5만여 명의 팬들이 외치는 함성이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을 뒤 흔들었다.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BTS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광장은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인파에 멤버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휴대폰으로 팬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BTS 멤버들은 스페인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멤버들의 사진과 BTS의 상징인 보라빛 소품을 손에 든 팬들은 BTS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열광했다. BTS는 공연 하루 전인 현지시간 6일, 멕시코의 플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약 40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국민급 대우인데, 앞서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BTS 공연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팬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열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과 멕시코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고요."라고 말했다. 사흘간 열리는 멕시코 공연은 모두 매진됐다. BTS의 월드 투어는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만 전 세계 34개 도시, 모두 85회 공연으로, 미국과 중동, 일본 등 대륙과 민족을 망라한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BTS의 월드 투어가 22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와 맞먹는 성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도 '250조' 수익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증시 상승의 덕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상승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피가 7,490으로 마감해 이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거침없는 상승 덕에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도 영국 증시를 제친 지 열흘 만에 캐나다 증시까지 제치고 세계 7위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부터 넉 달간 벌어들인 수익이, 이미 작년 한 해 수익을 훌쩍 넘어섰다. 올 들어 넉 달간 국민연금이 낸 수익금은 250조 원이다. 전체 기금 규모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수익률도 만 파져서 16%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18.8%로 231조 원을 벌어들여 국민연금 사상 최고의 운용 성과를 보였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뛰어넘었다.

코스피 초강세장에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을 확대한 게 적중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채권과 국내 주식 등 전체 투자구성 중 평소 14.9% 정도이던 국내 주식 비중을 24.5%까지 확대했다. 그중 과반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주가가 올 초보다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률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여기에 AI 관련 주식과 전력산업, 방위산업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수익은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도 기존 예측보다 훨씬 더 늦어질 걸로 보인다. 올해의 성과까지 더해진다면 고갈 시점도 2100년 이후로 미뤄질 걸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채권이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변동성에도 상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